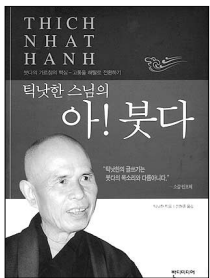


# 틱낫한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의 가르침

‘아! 붓다’

틱낫한 스님 지음 / 진현종 옮김  
반디미디어 / 1만1천원



삶은 고해(苦海)일까 행복일까? 틱낫한 스님은 “내 안에 있는 부처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철저히 접함으로써 고통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수행의 방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사성제·팔정도 등 교리 쉽게 풀어

‘아! 붓다’는 사성제와 팔정도, 12연기, 육바라밀 등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교리를 틱낫한 스님 특유의 평범하면서도 서정적인 문체로 풀이한 ‘불교해설서’이자, 교리에 담긴 진리를 토대로 일상에서 견기와 호흡을 통해 수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행안내서’다. 흔히 불교 이론과 수행은 별개의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틱낫한 스님은 “사성제와 팔정도는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바로 삶 속의 행동 방식이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국내에 소개된 틱낫한 스님의 책들이 명상수행 안내서 일색이었던데 비해 이 책에서는 정통 교학에 기반을 둔 선사이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책을 옮긴 진현종 씨는 “국내에 붓플처럼 쏟아져 나온 책 대다수가 틱낫한 스님을 음유 시인이나 무종파 영성 지도자로 포장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틱낫한 스님의 불교적 정체성 간과한다면 그의 이론과 실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책에서는 교리의 단순한 설명 대신 부처님과 제자간의 대화를 예로 들며 가르침의 참 의미를 전하고 있다. 또한 불교 전문용어는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를 병기하고, 이를 틱낫한 스님이 현대적 언어로 옮긴 용어도 소개한다.

특히 스님은 그동안 일관되게 강조해온 개념인 ‘전념(專念, mindfulness)’에 대해 일급 가지 항목에 걸쳐 설명한다. 그 핵심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전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의 행선(行禪, walking meditation)을 비롯한 프랑스 수행공동체 플럼 빌리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수행이 바로 이 전념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수령 기자



‘환속’  
김미이 지음  
마음산책 / 1만원

# 그들은 왜 세상에 돌아왔나

‘파계-계율을 깨뜨려서 지키지 않음’  
‘환속-다시 속인으로 돌아옴’

이 두 단어는 수행자에게 있어 결코 자랑스럽거나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환속’은 곧 ‘계도이탈’이자 ‘실패’로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6년간의 비구 생활을 접고 컴퓨터 수리공이 된 정연(가명) 스님. 명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지신한 후 미련없이 승복을 벗은 그는 “웃을 벗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모르고 지은 업이 얼마나 많았나”고 말한다. “마음은 편하게, 밥은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나를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종단의 컴퓨터를 무료로 수리하고 인터넷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이처럼 <환속>은 전에 성직자로 살았지만 지금은 일상인으로 돌아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어린 나이

성직자로 살다 일상인으로 돌아온 사연과 깨달음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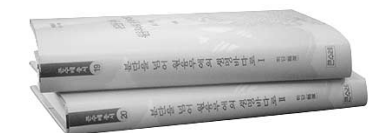
에 연니를 따라 들어간 수녀원이 결코 환상의 도피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22년 만에 세상으로 돌아온 카타리나 수녀님, 아학에서 가르치던 아이들에게 혐속보다 더욱 진한 모정을 느끼고 이들의 엄마가 되기 위해 환속한 효인 스님, 한 여자를 사랑해 사제복을 벗었지만 그녀에게서 ‘옛날의 바오로 신부님’을 사랑했던 지금의 당신을 사랑한 직 없다’는 말을 듣고 방황했다는 바오로 신부님, 자신의 지병이 다른 수도자에게 폐가 될까봐 수도원을 나왔지만 노숙자들을 돌보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테파노 수사님 등 5명의 사연이

오롯이 담겨 있다. 지은이가 1999년부터 5년간 취재해 90분짜리 테이프 36개에 수록한 열본 가운데 다섯 분의 이야기를 글로 옮겼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지은이는, 성직의 길을 택할 때만큼 많은 고뇌를 필요로 하는 ‘환속’을 결코 중도하차나 인생의 낙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진정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가장도 작은 절 아닙니까? 식구들이 나의 도반이 된 셈입니다(정연 스님), “나 같은 사람에게 출구는 반드시 수도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 밥을 흘려야 하는 농사일, 그 자체가 수도 아닐까요?”(카타리나 수녀) 등이 저 자신이 믿고 따르는 분의 말씀에 충실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자 구도자라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분단을 넘어 원용무애의...’  
황승연 지음  
근수례 / 각 1만6천원, 1만8천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학당 스님의 불교통일론을 담은 책이 나왔다. 지은이는 <분단을 넘어 원용무애의 생명 바다로 I, II>에서 불교 철학적 시각으로 통일을 전망하면서 민족간 화해협력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족분단은 고통의 근원”

“민족분단의 질곡은 대중 모두의 삶을 규정하는 소외와 고통의 근원”이라는 지은이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분단의 장애와 분단이 주는 상처,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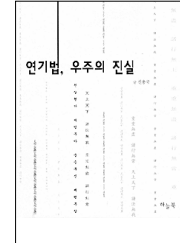
1권에서는 원호 스님의 화쟁(和諍)사상을 오늘날의 현실에 맞춰 재해석하고, 통일운동을 불교사상적으로 성찰해 본 글들을 담았다. 2권은 통일운동을 생명의 보편적 해탈을 지향하는 생명운동으로 보고, 통일을 위해 종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 새로운 책

■ <예불이란 무엇인가>(정각 스님 지음, 운주사, 8천원)=10여년 만에 선보인 <예불이란 무엇인가>의 개정판. 정각 스님이 서울 조계사에서 ‘예불이란 무엇인가’를 강의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내용이다. 지은이는 “예불이란 불교 신앙의 기본이며, 불교 교의의 핵심이 그 안에 망라되어 있다”고 말한다. 1부는 현대화에 맞춰 불교를 설명하며, 2부는 전통적 관념 아래 예불에 깃든 불교의 우주관을, 3부는 예불문을 통한 불교의 기초 지식을, 4부는 불교의례 속에 담긴 내재적 의미를 각각 논한다.



■ <연기법, 우주의 진실>(신용국 지음, 하늘북, 5천4백원)=<실천불교>의 저자인 신용국 씨가 ‘연기법’을 풀이한 책. “연기법을 현대의 언어로 해석해 보고자 했다”는 지은이는 “진리라고 말해지는 법 중에서 인간을 구속하거나 무릎 꿇게 하지 않는 법은 연기법 밖에 없다”고 말한다. 연기법의 의미를 설명하고 불교의 문제들을 연기법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 <한옥으로 다시 읽는 집 이야기>(최성호 지음, 전우문화사, 1만2천원)=‘조선시대에는 왜 한옥을 즐겨 지었을까’,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건축가인 지은이는 <한옥으로 다시 읽는 집 이야기>에서 한옥에 담긴 아름다움과 그 시대의 지혜와 정신을 읽는다. 구시대의 유행이나 문화재가 아닌, ‘생활을 담고 있는 집’으로서의 한옥을 살펴본다.



### 금주의 베스트북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정화 스님	시공사
2	밥상에 도가 있다	정세채 모	책
3	틱낫한 스님의 반야심경	틱낫한	장경각
4	완벽한 참선법	우룡 스님	좋은인연
5	살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해봉 거사	불광
6	이거통의 인도사원순례	이거통 한길사	한길사
7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 스님	효림
8	불교로 보는 채근담	홍자성	휴넷
9	산문	현진 스님	열림원
10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공부	대립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도서 안내: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에시이문 전화: (02)737-0695

##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스님들의 수행을 돌아보고 가슴에 녹아내리는 법문을 들으면서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인도합니다.

<td> <td> <td> <td> </td></td></td></td>	<td> <td> <td> </td></td></td>	<td> <td> </td></td>	<td> </td>	
<td> <td> <td> <td> </td></td></td></td>	<td> <td> <td> </td></td></td>	<td> <td> </td></td>	<td> </td>	
<td> <td> <td> <td> </td></td></td></td>	<td> <td> <td> </td></td></td>	<td> <td> </td></td>	<td> </td>	
<td> <td> <td> <td></td></td></td></td>	<td> <td> <td></td></td></td>	<td> <td></td></td>	<td></td>	